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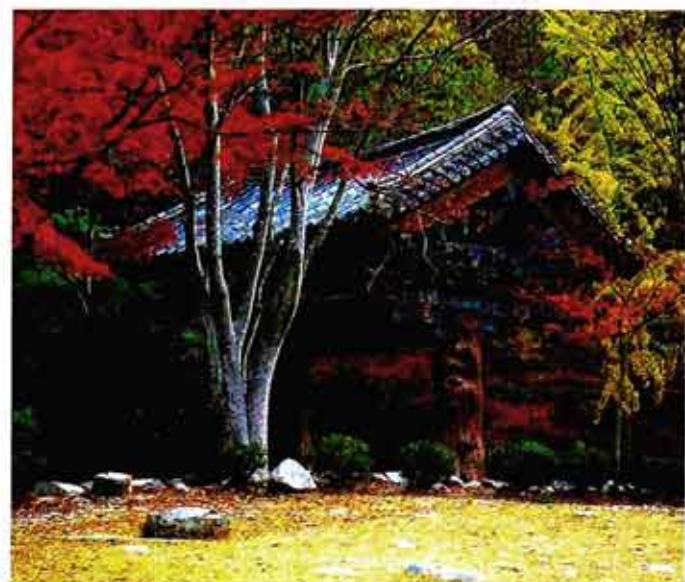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합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지역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 원조적 품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고려시대 의생활 '한눈에'



◇ 1302년 아미타불 조상에 참여했던 고려 재신 유홍신의 처 이씨가 평소 착용했던 '초삼배' 깃에 시주자의 이름이 쓰여져있다.



◇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한껏 치장한 산사가 불자들을 부르고 있다. 단풍으로 장엄된 내장산 내장사 일주문.

빨갛고 노란 단풍길따라 부처님 땀으로 여행

가볼만한 단풍비경

노랗게 빨갛게 형형색색으로 단장한 자연이 구성지겨 가을을 부르고 있다. 분단 반세기만에 금강산에서 눈부시게 화려한 자태를 드러낸 단풍은 백두대간을 따라 설악산으로 내려와 신홍사·낙산사에서 한껏 치장을 하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산사에 둘러 불심도 깊게하고 단풍이 절정인 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정화해 보면 어떨까.

■ 치악산 구룡사=노송림과 계곡이 가 뛰어나다. 적악산이라는 옛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단풍이 워낙 빼어나 곳. 0371-744-8100

0677-561-1422

■ 지리산 연곡사=연곡사에서 직전 마을 피아골을 거쳐 노고단에 이르는 4시간의 산행은 지리산 단풍의 진수. 지리산은 불교문화의 성지라고 할 정도로 화엄사, 천은사 등 전통사찰들은 단풍계곡에 꼭 빠져들어 가을을 한껏 피우고 있다. 0664-782-7412

■ 내장산 내장사=11월1일부터 5일간 단풍축제가 열리는 내장산 단풍의 절정은 백양사에서 내장사로 넘어가는 산행길 구비구비이다. 0681-533-8741

■ 용문산 용문사=황금빛 가을을 구워내는 은행나무가 곳곳에 서있다. 1천년의 세월을 어깨에 짊어진채 60m에 달하는 천연기념물 30호 용문사 은행나무는 동양에서 가장 오랜 나이를 자랑한다. 매표소에서 용문사까지 약 1km의 숲길을 걸으며 고송과 단풍나무가 그윽한 가을풍취를 느낄 수 있는 절묘한 장소. 0338-773-3797



■ 태백산 망경사=문수봉 정상까지 이르는 길은 눈덮인 단풍이 유명한 초겨울 등산코스도 정평. 요즘 같이 갑작스레 첫눈이라도 내리면 그 풍광은 형용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함을 보여준다. 0395-553-1567

■ 계룡산 감사사=추(秋)감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리술'이라 불리는 길목은 투명하리만큼 맑간 단풍인데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관음봉에서 온천폭포를 거쳐 오다보면 그 옛날 시주들을 머리에 이고 감사를 향하던 우리네 어머니의 불심이 절로 느껴진다. 0416-857-8981

■ 월악산 신록사=신라 아도가 창건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신록사는 용화계곡과 960봉을 잇는 길이 단풍으로 유명. 0443-642-3803

■ 가야산 해인사=삼보사찰 중 가장 단풍이 뛰어난 사찰. 용기폭포 상왕봉에 이르는 등산로를 걷다보면 성철스님의 수행담이 들려오는 듯하다. 0599-931-1001

■ 가지산 석남사=푸른 노송이 늘어서 있는 사이 사이로 빨갛게 물든 단풍이 사찰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귀바위 쌀바위를 잇는 코스 역시 단풍 물든 길목이 가을 불심을 재촉한다. 0522-264-8900

■ 도솔산 선운사=들어가는 길목에는 사냇물에 두둥실 떠내려오는 붉은 단풍잎이 제일 먼저 나그네를 반긴다. 선운사에서 지장보살좌상(보물 제280호)이 봉안된 도솔암으로 가는 길의 붉게 젖어든 단풍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의 자비심을 담아낸다.

■ 봉황산 부석사=매표소에서 일주문을 지나 무량수전을 지나 이어지는 비탈길은 은행나무가 천지다.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질 때면 노란 눈꽃이 흩날리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풍경같은 길이다. 0572-633-3464

■ 광덕산 광덕사=5백년 나이를 먹은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방문객들을 반긴다. 일주문인양 하늘을 향해 고개 세우고 있는 은행나무 앞에서 합장하면 세속의 때가 씻겨나가는 듯하다. 0417-567-0050

■ 칠현산 칠장사=들어가는 길목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터널이 200m 정도 폭 넓어서 있어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하늘 하늘 흩날려내리는 노란 잎으로 눈 앞이 아득해진다. 0334-672-7777

■ 오대산 월정사=초입의 전나무숲길, 상원사로 이어지는 숲길 등이 빼어나다. 상원사 입구의 숲길은 10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소나무와 낙엽참나무가 즐비하고 담그름나무 가지박달나무, 풀쭈레나무 산뽕나무 산사나무 계수나무 함박꽃나무 잣나무 옻나무 등이 천연수림지역을 이루고 있다. 상원사에서 적멸보궁을 오르는 길에는 방한입선사가 사용하던 자랑이가 단풍나무로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0374-332-6664

김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 금비단으로 짠 '보끼문양주머니' 유홍신의 극락왕생을 빌원하기 위해 부인 이씨가 불벽장에 넣은것이다.



◇ 주홍 무문라 (朱紅無紋羅). 오방에 따라 복장물을 썼던 주홍색 비단이다.



◇ 그려나기 찍힌 다양한 직물들. 보라색을 중독하여 지혜의 법신의 대입여래의 불과를 얻어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는 신앙의식의 형태이다.

온양민속박물관 '고려의 불복장과 염직' 출간

14세기 아미타불 복장염직물 228점 소개 한-중-일 복식문화교류 실상 연구자료

신앙의 대상으로 아미타불상의 복장(覆藏) 염직물이 700년간의 시간을 초월해 고려시대 의복, 염직 그리고 한·중·일 복식문화 교류의 실상을 파악해 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온양민속박물관(관장 신학근)이 1990년 입수한 아미타불의 복장물 267점 가운데 의류 3점, 직물조각 220점 양주머니 5점 등 염직물 228점을 분석한 연구서 《고려의 불복장과 염직-1302년 지조왕경과 직물의 특성》(계몽사 펴냄)을 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복장물은 경상북도 소재로 추정되는 사찰에 1302년 조성된 아미타불에서 출현한 것으로, 이렇게 많은 고려시대 염직물이 출현하기는 처음이다. 복장물은 불상을 조성하면서 (조상경)의 법식에 따라 복장 안에 넣는 사리, 사리봉, 5곡, 오색실, 불경, 의복, 다라니, 만다라, 조성기 등의 75가지 각종 물품을 말한다.

온양민속박물관이 입수한 복장물은 해인사 비로자나불, 흑석사 아미타불 등의 복장물과는 달리 다양한 류의 염직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고려의상 동정사용 입증 현대직물과 비교 손색없어

이에 따라 이들 염직물이 91년 첫 공개되면서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여성의 상의에 동정을 사용했을 만큼 의생활이 발달했고, 《고려사》 등 문헌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장복서' '염직국' '잔직서'와 같은 염직·직조 관청의 실체와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이들 염직의 섬세함과 문양의 다양한 현대직물과 비교해 손색없을 정도라는 평가다.

당시 중국·일본의 유교 학계에서는 고려시대 염직·직조술은 중국 원나라에서 지수입한 것일뿐 아니라 '동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조선시대로 볼만큼 우리나라의 의생활 수준을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였다.

아미타불의 염직물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의상 3점과 7종의 천이다. 복장물의 하나인 발원문에 '자의' '상의' '초삼배'로 기록된 3종의 의복은 모두 웃옷인데 등에서 새로운 자른 반 쪽이다.

김영숙 문화재전문위원은 '자의'를 남성용 관복으로 '상의'의 초삼배를 여성용 일상복으로 보고 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1123년에 쓰여진 《고려도경》에 왕과 대신은 '자라포'와 '자문라포'를 각각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상의'에서는 넓이가 1.5cm인 동정이 발견돼 고려시대부터 동정이 사용됐던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 '초삼배'는 《동사강목》에 나오는 '배삼(背衫)'의 형태를 가늠케한 전기를 마련했다.

아미타불에서 출현한 7종의 천은 그 동안 각종 문헌에 등장하는 염직물들이 어떠한 직조와 문양으로 제작된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다. 7종의 염직물은 '능(綾)' '리(羅)' '초(綃)' '검(綾)' '주(紬)' '기(綺)' '바(縠)' 등이며 존재구(다라니)가 찍혀 있는게 특징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u@buddhapia.com)